

제4회 충북 한우고급육 경진대회 최우수상 이경천 농가

충북지역본부 과장 정규식



이경천 대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옛이야기 지를 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아...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 노래는 충북 옥천 출신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 정지용의 '향수'다. 옥천은 충북 남쪽 끝 영동군과 나란히 있는 군으로 행정 구역 상으로는 충청북도에 속하지만 대전시까지 18 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생활권은 오히려 대전에 가깝다. 금강줄기가 이어지는 대청호수로 유명한 깨끗한 물과 향수의 고장 옥천의 '이경천 농가'를 방문하였다. 이경천 대표는 지난 9월 서울 축산물공판장에서 개최되었던 '제4회 충청북도 한우고급육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최우수 수상 출품우의 등급판정결과〉

품종	성별	등지방	등심면적	중량	육량	육량	근내지방	육질	등급	경락가격	순위
불종	거세	10	10	428	73.46		93		1A	21,910	

이경천 대표가 처음 소와 접한 것은 23년 전으로 한우가 아닌 젖소였다. 젖소를 사육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우도 함께 사육하게 되었고 지금도 젖소 30여두를 착유하고 있다. 충북도 브랜드인 청풍명월의 작목반 회원이기도 한 이 대표는 옥천 영동축협(조합장 홍성권)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우수농가 견학프로그램(전국의 우수한 농가를 찾아 월1회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이번 수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초기자본 부족으로 한우 2두로 시작한 한우사육이 현재는 50여두로 대규모 농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처음 젖소사육을 시작할 당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자연스럽게 터득한 노하우로 한우 사육만큼은 소의 질병 치료부터 정액선택 및 인공수정까지 스스로 하는 전문가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특별한 사양관리 방법이 있느냐고 질문에 '특별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은 없지만 우수한 혈통의 정액선택과 등급이 잘 나오는 어미 소에서 밀소를 생산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 한 마리 한 마리를 내 자식같이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며 정성을 들이는 것이 노하우'라고 말씀하시며 소탈한 웃음을 지으셨다.

앞으로의 계획

현재는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다른 장소에 축사를 마련하여 계속 사육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150여두까지 늘릴 계획이란다. 마지막으로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바라는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등급판정소에서 보내주는 등급판정결과가 제일 고맙다'며, '앞으로도 축산발전을 위해 판정소가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축사 가는 길이 시골의 꼬불꼬불한 오솔길이어서 나오는 길이 은근히 걱정되었는데, 이경천 대표가 오토바이로 배웅해주는 배려로 어렵지 않게 큰길까지 나올 수 있었다. 풍성한 가을의 훈훈한 농촌의 정(情)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등급판정 2009.1월~현재〉

구분	1*	1	1	2	3	소계
한우 암	-	1	2	-	-	3
한우 수	-	-	2	-	-	2
한우거세	3	5	-	-	-	8
계	3	6	4	-	-	13